

# <석존일대가>의 표현 구조와 장르 성격

전재강\*

## <차 례>

1. 서 론
2. 층위별 표현 구조
  - 2.1. 문맥 층위의 서술 구조
  - 2.2. 단락 층위의 전개 구조
3. 중층적 장르 성격
  - 3.1. 서사성
  - 3.2. 희곡성
4. 결론

## <국문초록>

석존의 일생을 다룬 읍문의 전통을 근현대에 가사로 나타낸 것이 <석존일대가>이다. 이 작품은 근대 가사로서 특징도 보여주며 교술이면서 서사적이고 희곡적인 성격도 보여 주며, 가사로서 석존의 일대기를 다루는 문학사의 최근 현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가치를 지닌 작품이다. 연구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이 작품 자체의 표현 구조, 장르 성격 등을 따져 봄으로써 그 본질을 해명하고자 했다.

먼저 표현 구조의 문맥 구조와 단락 전개 구조 중에 문맥 구조에서는 두 행 또는 두 문장 이상이 모여 이룬 큰 문장들의 내적 상호 관계 맥락을 연결 방식과 종결 방식으로 나누어 살폈는데 사실의 나열이나 시간 순서에 따른 제시의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 인과 관계로 연결된 경우 등 연결 방식은 이 작품이 많은 사실 전달하고 가르치면서도 논리적으로 독자를 설득하고자 하는 의도를 드러냈다.

\* 안동대학교

단락의 전개 방식에서 보면 전체가 9개의 장에 각 장은 다시 여러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제1, 5, 6장은 문제-해결 배치 방식의 단락 전개를 보이고, 제2, 3, 8장은 자연적 시간 질서와 인위적 논리 질서를 병행하고, 제4장은 세출세간의 갈등을 통한 출세간 가치의 승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제7장은 세간과 출세간을 아우르는 교화, 고난과 극복으로 이어지는 교화를 서사적으로 진행하면서 사이에 작자의 설명, 판단 등을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단락이 전개되고, 9장에서는 주장과 이유 제시라는 인위적 논리에 따라 단락을 전개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곧 문맥 구조를 통해 감성적으로 제시한 여러 사실을 논리적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석존과 그 가르침에 대한 작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단락을 전개시키고 있었다.

작품의 장르 성격 가운데 서사성의 측면에서 작품 외적 자아가 장면 서술을 통한 표면적 개입은 물론 인물의 심리 세계나 제시한 사실에 대해 고증하는 방식으로 개입함으로써 심층적 개입을 하고 있고,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 간의 치열한 갈등을 드러내며, 전체 작품 내용의 서술에서 과거와 현재시제를 혼용하여 내용 전달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서사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이 작품은 희곡적 요소인 대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핵심적 갈등 요소를 주로 대화의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출가를 두고 갈등을 빚은 태자와 부왕의 대화, 출가후 수행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태자와 외도의 대화, 석존과 제자의 대화,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그 대표적 예이다. 대화 기법은 그 자체로 희곡적 성격을 나타내보여 주는데 특히 대화의 제시 방법에서 설명을 희곡에서의 지문과 같이 하고 대화 방식은 희곡의 그것과 완전히 같게 하여 본격적 극의 성격을 보여 줌으로써 이 작품은 희곡성을 장르 성격으로 확보했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성격이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을 알리고 가르치려는 교술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희곡성과 서사성이라는 두 성격을 통하여 드러낸 내용이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가르치려는 데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장르적 성격을 희곡적 성격을 약하게 가진 서사적

교술이라고 보았다.

핵심어 : <석존일대가>, 표현구조, 문맥층위, 단락층위, 장르성격, 서사성, 희극성, 교술성

## 1. 서론

불교가사는 고려말 가사 발생기에 가사의 남상(濫觴)으로 나타나서 현대까지 향유되고 창작되는 살아있는 시가 갈래의 하나이다.<sup>1)</sup> 이 가운데 <석존일대가>는 일반 가사 문학으로서도 대작이며 불교 가사의 역사상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작품이다. 그런데 정작 이 작품에 대한 본격적 연구는 이제 겨우 시작 단계에 들어섰다고 할 수 있다.

불교가사는 작가가 거의 다 밝혀져 있고 또한 현장의 불교 의식 절차나 불교적 수행과 관련하여 다양한 유형이 창작되었는데 이 작품은 그런 불교 가사의 유형에서 볼 때 찬불가류에 해당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물론 여타의 찬불가류 불교 가사가 교주 부처를 직접적으로 찬양하고 높이는 데에 집중하는 것에 비하여 다소 특이한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주제적 차원에서 보면 찬불가류 불교 가사에 가장 근접한다.

이 작품은 마명의 <불소행찬>, 고려 후기 <석가여래행적송>, 조선 초기 <월인천강지곡>, 근대의 <석존일대가>로 이어지는 주인공 석가를 노래하는 우리 시가사의 전통 선상에 놓여 있다. 시나 가와 같은 율문 이외

1) 줄 고, 「제2장 경상북도 지역 민간 전승 불교가사 유형과 작품의 성격」 『한국불교가사의 유형적 존재 양상』 보고서, 2013. 329-359쪽. 참고. 이 지역 부녀자들이 현재까지 규방가사의 방식으로 기존의 불교가사를 향유하고 있고 작자들이 다시 불교 가사를 새롭게 창작한 사례를 이 논문에서 밝혔다.

2) 줄 고, 「제9장 찬불가류 불교가사의 지향적 주제와 다층적 갈래 성격」 『한국불교가사의 유형적 존재 양상』 보고서, 2013. 268-300쪽.

에 <석가여래십지수행기>, <월인석보>, <팔상록> 등 산문 작품까지 포괄해서 보면 석가의 일생을 표현한 문학 작품의 역사적 전개가 더 풍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석존일대가>는 바로 이와 같은 역사적 흐름상에서 근현대의 문학적 성취라는 점, 기존의 한시나 약장, 산문으로 일대기를 표현하던 데서 가사로 노래하고 있다는 점, 근대 가사의 전형을 보여 준다는 점 등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지닌다.<sup>3)</sup> 작품이 창작된 이유나 작품이 보여 주는 다양한 특성들은 이런 중요한 표지를 잘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작품이 갖는 외적 정황에 대한 연구는 김기중<sup>4)</sup>에 의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논의되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작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입장에서 작품 자체의 분석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작품의 본질을 구명하기 위해서 작품을 이루는 중요한 단위인 문맥의 층위에서 서술 구조를 살피고 이것이 상승하여 형성한 단락 층위의 전개 구조까지 분석하여 작품 전체 표현상의 특성을 먼저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 구조가 결국은 작품의 성격을 규정하는 방향으로의 추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논의한 표현 구조에 기초하면서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가진 장르 성격을 따져 보고자 한다. 이것은 이 작품의 실상에 대한 해명이면서 가사 문학 전체의 이해에 필요한 경험적이고 구체적인 논의의 한 사례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 작품이 실린 실제 문헌<sup>5)</sup>과 이를 현대적으로 정리한 2차 자료<sup>6)</sup>, 그리고 이 작품을 연구한 기존의 연구 성과<sup>7)</sup> 등을 고루 참고하면서 논의를

3) 이 작품이 지닌 문학적 의의는 석존의 일대기를 한시, 약장 등 시가의 전통상에서 근대 가사로 계승했다는 점과 함께 일반 가사 문학사에서 근대 장편 서사 가사의 대표적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4) 김기중, 「<석존일대가>의 서술 양상과 시대적 맥락」 『불교학보』 제54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0. 189-219쪽.

5) 참고 문헌에 제시한 이용섭이 지은 자료 부분 참고.

6) 임기중이 정리한 자료. 임기중 편저, <석존일대가> 『불교가사원전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1043-1128쪽.

7) 참고 문헌으로 대신함.

진행하고자 한다.

## 2. 층위별 표현 구조

여기서는 문맥의 흐름이나 단락의 전개 구조를 살피고자 한다. 표현의 문제는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다. 어휘의 차원, 통사의 차원, 문장 수사의 차원 등의 기준에서도 논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작품 전체의 그림을 정확히 읽어 내기 위해서 어휘가 구성한 문장들의 상호 관계라는 문맥 층위의 문제를 따져보고 이것이 단락으로 확대되었을 때 나타나는 구체적 전개 구조를 파악함으로써 작품 전체가 보여주는 표현의 문제를 두 층위에서 유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 2.1. 문맥 층위의 서술 구조

여기서는 둘 이상의 문장이 상호 연관을 맺는 관계라는 의미로 문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그래서 문장 하나하나를 별도로 분석하는 국어학적 관심이 아니라 문장들이 모여서 연출하는 상호 관계의 맥락을 분석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이 문맥의 형식적 분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어떤 내용과 연관하여 이런 문맥적 서술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무엇인지 등을 따져 보고자 한다.

이런 개념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문장을 종결하는 방식은 물론 문장을 연결하는 방식에도 주목하여 이것이 작품의 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결합하고 있는지를 함께 살핌으로써 양자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맥상의 서술 구조의 특성을 밝혀 보고자 한다. 즉 이 작품을 구성하는 문장들의 종결 방식과 연결 방식을 전체적으로 살펴서 그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1)저희들의 祖上들이 분지야부 廣野에서  
 恒河上流 移轉할제 그때부터 시작하야(1-5)  
 征服者와 被征服者 治者이며 被治者가  
 種族懸隔 幽深하야 四姓階級 形成했네(1-6)  
 이制度를 基礎삼아 法規律令 制定하고  
 刹帝利가 곳곳마다 國家들을 形成했네(1-7)

(2)그런고로 太子形體 憔悴하야 枯木갓다  
 이에太子 思惟하샤 크게소득 잇섯스니(6-2)  
 慧解로써 成道하고 根으로서 慧解나며  
 根의基礎 食物이니 斷食함이 不當하다(6-3)

(3)실리국다 독반으로 석존님의 드리는등  
 種種陰謀 奸計人中 제바달다 웃뜸이라(7-90)  
 제바달다 인물됨이 용맹하고 다지하며  
 驕慢하고 기재잇서 다른사람 籠絡하네(7-91)  
 거긔佛門 들어와서 불제자를 기만하야  
 자기당과 되게하고 五個條의 嚴戒벗네(7-92)

(4)노철인이 크게깃버 불제자가 된연후에  
 세존입멸 불수업서 문저입멸 했다하네(8-27)  
 불제최후 구법자는 실로수발 타라로다(8-28)  
 그러하면 석가세존 世界開闢 한이래로  
 第一偉人 이라함이 엇지不可 할까부냐(9-8)

(1)(2)번은 연결 방식을 보기 위해서 가져온 작품의 부분들이다. 먼저 (1)을 보면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는 부분이 여러 곳 나온다. ‘---이전할 제, 그때부터 시작하야, 치자이며, 유심하야, 기초삼아, 제정하고’ 등 여럿이다. ‘--이전할제’는 시간의 배경을 나타내는 데에 사용되어 부사적으로 이어진 것이고, ‘시작하야’는 일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선후 관계로 잇는 연결 방식이고, ‘유심하야’의 어미는 다음에 일어날 사태의 원인을 보이는 역할을 하여 인과의 연결 방식이고, ‘기초삼아’는 다음에 일어날 일의 선

행 현상으로 단순히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제정하고’는 법규법령을 제정하는 일 하나와 다음에 이어지는 다른 내용을 단순 나열하는 역할을 각각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나타난 6가지의 연결형 어미가 하는 기능은 ‘--이전할제’와 ‘유심하야’의 둘을 제외하고는 모두 어떤 새로운 사태를 시간 순서대로 또는 단순 나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즉 ‘그때부터 시작하야’의 경우에는 이후 일어나는 일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이떠’의 경우에는 ‘치자와 피치자’를 대등하게 이어주고, ‘---삼아’의 경우에는 제도를 먼저 만들고 다음에 율령을 제정한다는 말이 되어 두 가지 사태가 순서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연결하고 있다. 그리고 ‘---제정하고’의 경우에는 다음에 보인 국가를 형성하는 사건과 나란히 배치하여 두 가지 사태를 나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작품 전체에서 연결 방식을 보여 주는 표지는 이와 같이 시간 순서, 사실 나열 등 단순 연결이 압도적으로 많다.<sup>8)</sup>

그런데 (2)번은 조금 다르다. 여기서도 쓰인 연결형 어미를 중심으로 해당하는 어휘를 보면 ‘---사유하샤, ---잇섯스니, ---성도하고,----해해나며, 식물이니’ 등이 나타난다. 여기서 앞 뒤 문맥으로 보아 ‘---사유하샤’는 뒤에 나오는 ‘크게 소득 잇섯스니’의 원인자가 되어 인과의 관계

8) 이런 사례를 더 보면 ‘제2장 석존의 조선’의 일부에서 ‘이와가튼 세업잇는 석가족은 후에다시/로히니하 동에잇는 구리에다 지성쌌코(2-7)/일족분거 하였더니 후직시 독립하야/성호고쳐 제바타하 국명곤쳐 구리라네(2-8)’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구리에 성을 쌓고 분거하고 이어서 독립하고 성호를 고쳐서 제바타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석존의 선조가 살아온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나열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상호 연결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하는 문장들을 일일이 다 인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연결 방식을 취한 작품에서 무엇을 그렇게 연결하는가만 조금 더 살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제3장 석존의 탄강’의 경우 석존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소개하고, 석존을 낳고 마야 부인은 안락했고 오욕락을 끊었다는 사실을 나열하고 ‘제4장 석존의 출가’에서도 정반왕이 태자 출가를 막기 위해서 삼시전을 만들고 누각을 경영하고 채녀와 영인들이 시중 들게 하고 미인이 시봉하는 등 여러 가지 사실을 보여 줄 때 시간 순서, 단순 나열의 방식으로 문장을 잇는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말하고자 한 석존 관련 수많은 자료를 순서에 따라 또는 단순 나열의 방식으로 제시하면서 이런 연결 방식의 문맥 구조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로 문장을 잇는 기능을 하고 있고, ‘---잇섯스니’ 역시 뒤 문장의 원인을 앞에 보여주는 역할을 하여 앞뒤 문장을 인과 관계로 연결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식물이니’ 역시 바로 뒤에 일어날 행위의 원인자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여 인과의 연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성도하고,----혜해나며’의 경우에는 대등한 사태를 나열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인과의 관계로 문맥을 연결하는 어미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태의 논리적 진술의 필요에 의해서 나타난 문맥 연결 장치라고 할 수 있다.<sup>9)</sup>

지금까지 문장을 이어주는 연결 기능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았는데 (3)(4)의 경우는 문장 종결의 방식을 살피고자 가져온 작품의 일부분이다. 이 작품은 긴 장편 가사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살핀 연결형 어미가 그리 하듯이 종결형 어미도 다양하지 않고 매우 단순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예문 (3)은 객관적 사실을 단순하게 제시하면서 평서형의 종결 방식을 사용한 경우이다. 실제 해당 부분을 추출해 보면 세 가지 종결형이 나오는데 ‘웃뜸이라, 농락하네, 엄계뻗네’가 그것이다. 여기서 사용된 ‘이라, -네, 뻗네’가 모두 ‘-(이, 하, 껴)다’와 같은 것으로 평서형 종결어미이다. 이것을 내용과 연결해서 보면 ‘-이라’는 제바달다의 간계가 가장 으뜸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하네’와 ‘뻗네’는 제바달다가 보인 나쁜 행위의 두 가지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평서형 종결

9) 여기서도 유사한 사례를 더 들어 보면 ‘제5장 석존의 고행’에서 ‘만일지가 잇고보면 반연합이 잇스리니/엄착조차 생기리라 엇지구경 해탈되랴(5-54)’라고 하여 반연합이 있기 때문에 엄착이 생긴다고 하여 인과 관계로 문맥을 잇고 있다. 또 ‘제7장 석존의 설법’에서 ‘우루빈라 가섭과를 방문하고 법설하니/오백제자 한가지로 불문중에 귀의하고(7-21)/나제가야 두가섭은 형이임의 사사하니/삼백제자 이백제자 쏘한가지 귀의하네(7-22)’라고 하여 설법을 했기 때문에 오백제자가 귀의했고 형이 이미 사사했기 때문에 귀의했다고 원인을 말하고 있다. 이유를 분명하게 드러내야 하는 경우에 이와 같은 인과의 방식으로 문맥을 결구하고 있어 논리적 설득이 필요할 때 이런 연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단순 나열이나 시간 순서에 따라 제시할 때 사용하는 연결 방식보다는 출현 빈도수가 낮다. 석존의 일생에서 보인 중요한 사건이나 교시, 교설을 표현할 때 이런 논리적 연결 방식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지만 ‘---네’의 경우 객관적 사실의 제시에 충실한 ‘---라, ---다’와는 다소 다른 어감을 준다. 부드럽고 감탄의 분위기를 더해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평서형이면서 단정이나 사실의 제시에 충실한 ‘--라, ---다’보다 감탄의 어감을 더해 주는 ‘---네’형의 어미를 절대적으로 많이 구사하여 작품에 제시한 여러 가지 사태를 매우 정서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사실의 단순 나열이나 인과적 연결을 통하여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감성에 호소하려는 문장 종결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sup>10)</sup>

(4)에는 ‘했다하네, 실로수발 타라로다, 할까부냐’ 등 종결어미가 세 가지 나온다. 이 가운데 ‘했다하네’에서 ‘---네’는 (3)에서 논의한 것과 같이 감탄의 어감을 지닌 평서형 어미이고 ‘실로수발 타라로다’의 ‘---로다’는 감탄형 종결 어미이고, ‘할까부냐’의 ‘---냐’는 의문형 어미이다. 전체 작품에서 평서형 종결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어미가 감탄형 종결이다. 그런데 여기에 인용한 예문에서 감탄의 내용은 석존이 입멸하기 직전에 법을 구한 최후의 구법자를 두고 이루어졌다. 이것은 최후 구법자가 누구인가를 알리려는 점보다는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도 중생을 제도한 석존의 위대한 자비 실천을 드러내어 찬양하기 위하여 감탄형 종결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감탄형의 종결은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을 두

---

10) 여기서도 유사한 사례를 더 들어 보면 ‘제3장 석존의 탄강’에서 ‘일흠잇는 제제바 무예사로 초빙하야/정반왕의 원중에서 무예강습 식히섯네(3-15)/태자천재 초월할 사 문사썩만 아니시라/무도에도 능통하샤 탁절기능 보히섯네(3-16)/국내명인 달 사이며 기타일반 왕족들과/그기능을 격투하샤 용무지명 날리섯네(3-17)’라고 하여 태자의 탁월함을 소개하는 부분인데 무예 강습을 시킨 사실, 무예에 뛰어난 사실, 이름을 날린 사실 등을 말하면서 모두 감탄적 어감을 주는 문장 종결형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객관적 사실이 찬양의 대상이 되게 바꾸는 기능을 종결 방식이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외에 ‘제4장 석존의 출가’에서도 태자가 비를 맞는 사실, 성민들이 경축하는 사실 등을 감탄적 종결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제5장 석존의 고행’에서도 출가하여 마부 차익을 돌려보내는 일, 왕이 보낸 사자가 태자를 호위한 일 등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평서형의 문장 종결은 분명하게 단정할 사안에 대해서 ‘-다(라)’의 형태를 취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감탄의 어감을 가진 종결 방식을 ‘---네’를 사용하여 사실을 감성적으로 전달하려는 의도를 보여 주고 있다.

고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다. 예를 들어 ‘제1장 총론’에서 인도의 당시 정황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구십여파 철학자는 참이치를 토론하며/대소 왕후 서로서로 패업을 다투도다(1-3)’라고 하여 극도로 분열한 철학적 혼란, 정치적으로 패업을 다투는 치열한 쟁투 상황 등이 겹친 당시 인도 사회를 두고 감탄형의 종결을 통해 시대를 탄식하는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sup>11)</sup> 그리고 (4)의 마지막 문장에서는 전체 작품을 마무리하면서 석존을 세계의 제일 위인이라는 것을 설의적 의문을 통하여 강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sup>12)</sup>

11) 주인공인 석존의 경우나 관련 중대한 사태를 두고 감탄의 종결방식을 통하여 이를 정서적으로 강한 인상을 남기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제1장 총론’에서 ‘모든학설 타파하고 인심일세 사회개조/불교라는 무상묘법 세존께서 설하셨네(1-32)/세력잇는 그설법이 질풍갓고 신뢰가치/오천축을 풍미함도 우연한일 아니로다(1-33)’라고 하여 앞에서 당대의 문제를 탄식조로 표현한 것과는 반대로 여기서는 불교가 기존의 이런 모든 문제를 해결한 위대한 성취를 감탄형 종결을 통하여 영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감탄형 종결을 통하여 당시 사회나 사상계에 보이는 문제적 상황에 대해서는 탄식을, 이를 극복한 긍정적 상황에 대해서는 찬탄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 ‘제5장 석존의 고행’에서 ‘모든고인 수행하여 엇지고보 구하리요/네구하는 낙이란 것 필경고로 썬이로다(5-13)’라고 하여 먼저 설의의 문장으로 외도의 잘못을 단정적으로 지적하고 다시 석존이 외도의 오류를 비판하는 말을 감탄형의 종결로 마무리하고 있다. 여기서 감탄형 종결은 상대의 오류를 통렬하게 지적하는 석존의 타당성을 돋보이게 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핵심적 문제 상황, 위대한 성취 등에 감탄형 종결형을 부가하여 긍정, 부정의 강렬한 정서를 유발하고 있다.

12) 여기에 사용된 의문문은 일반 의문문이 아니라 사전적으로는 反語疑問文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장의 형식은 물음을 나타내지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 강한 긍정 진술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의 문형 종결 방식은 석존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인물임을 강하게 주장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제5장 석존의 고행’에서 ‘모든천락 있다하나 그복보가 한이잇서/복업한번 멸진하면 육도윤회 못면한다(5-12)/모든고인 수행하여 엇지고보 구하리요(5-13)’라고 하여 석존이 외도에게 비판하는 말을 평서형의 종결로 단정적으로 마무리하고 그 방법으로는 절대로 苦報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설의의 의문문으로 다시 강조하고 있다. 같은 장에서 ‘내가엇지 세간오욕 엇기위해 출가하리(5-31)’라고 하여 석존이 자신의 출가 이유가 출세간에 있다는 의미로 세간 오욕을 강하게 부정하는데 설의의 의문을 사용하고 있다. 그 외에 일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 의문문의 형식으로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문장을 배치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5-40에서 외도의 요의가 무엇인가를 묻고 실제 대응으로 대답하고, 7-27에서 가섭이 부처께 귀의한 소리가 무엇인가를 실제 묻고 여기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어떤 설명을 하기 위하여 질의를 앞세우는 것으로 이런 단순 의문형은 드물게 사

이상에서 살핀 문장의 연결 방식과 종결 방식을 통해서 볼 때 나타난 문맥 구조는 이 작품이 지향하는 중요한 성향을 잘 드러내는 기본 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다. 연결 방식에서 나타난 나열과 인과의 관계는 다양한 사실을 전달하기도 하면서 이런 사실들의 관계를 일정한 논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종결 방식에서는 이런 문맥구조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한 다양한 사실과 증명하고자 한 논리의 방식을 일부 단정적으로 제시하기도 했지만 이를 정서적 감동을 통한 감정에 호소하는 종결 방식, 설의 등의 강조하는 종결 방식으로 문장을 서술하여 사실을 정서적이고 강조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문문의 경우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어떤 사태를 반어적으로 더욱 강조하는 역할을 하여 작자가 주장하고자 한 내용을 강하게 강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사실의 제시와 논리적 진술을 위한 연결 방식, 사실의 객관적 제시와 정서적 접근, 강조 등을 위한 종결방식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만들어진 단락의 전개 방식은 어떠한 지를 단락층위라는 조금 더 상층위에서 따져 보고자 한다.

## 2.2. 단락 층위의 전개 구조

엄격히 보면 앞에서 살핀 문맥 구조는 단락의 하위 단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단락을 앞에서 살핀 문맥구조보다는 더 상위 단위에서 작품의 문단이나 그 이상 규모의 글 뭉치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 작품을 구성하는 가장 큰 단락은 작자가 제1장에서 제9장까지 제목을 붙여 가며 인위적으로 장을 구분해 놓았다. 그리고 각 장안에서는 두 행을 하나로 묶어서 번호를 순차적으로 매겨 놓았다. 각 장을 구성하는 두 행 짜리 한 묶음의 개수를 순서대로 보면 ‘제1장 총론’ 33개 묶음, ‘제2장 석존의 조선’ 9개

---

용되고 있다.

묶음, ‘제3장 석존의 탄강’ 17개 묶음, ‘제4장 석존의 출가’ 20개 묶음, ‘제5장 석존의 고행’ 60개 묶음, ‘제6장 석존의 성도’ 21개 묶음, ‘제7장 석존의 설법’ 112개 묶음, ‘제8장 석존의 입멸’ 51개 묶음, ‘제9장 총결’ 8개 묶음으로 전체 331묶음이고 행의 수는 662행이 된다. 작자가 설정한 장의 이런 배치를 보면 제1장과 제9장에서는 마치 논설문의 서론과 결론과 같은 의미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2장에서 8장까지는 석존의 일대기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면 각 장 안에서 단락이 실제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를 제1장부터 제9장까지 차례로 핵심적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제1장 총론’은 33개 묶음<sup>13)</sup>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내용별로 보면 1에서 3천년 전 인도의 공간적 배경, 2-19에서는 바라문, 20-28에서는 외도, 29-33에서는 부처의 출현을 각각 다루었다. 바라문이 성하면서 나타난 문제를 새로운 외도가 시정하고자 나타나고 그 외도가 노출한 문제에 부처라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순서로 총론을 구성하고 있다. 즉 ‘외도(1)의 문제->외도(2)의 해결->외도(2)의 문제->석존의 해결’이라는 방식으로 단락 전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제2장 석존의 조선’의 9개 묶음을 보면 제1묶음에서 지역의 배경을 제시하고 제2묶음에서 제8묶음까지 선조가 살아온 과정을 소개하고 제9묶음에서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장은 석존의 조선에 대한 시간 순서에 따른 서사적 제시와 마지막 요약의 방식으로 단락을 전개하고 있다. 이 장은 시공간이라는 자연의 질서와 요약이라는 인위적 질서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단락을 전개하고 있다.

‘제3장 석존의 탄강’ 전체 17개 묶음에서 1에서는 선조를 소개하고 2-7에서 실달다의 탄생, 8-11에서는 태자의 성장, 12-17에서는 국제 관계와 태자의 문무 능력을 각각 노래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석존 탄생 이전 그의 선조에서 시작하여 탄생과 성장 과정이라는 시간 순서에 따라 단

13) 이하 묶음이라는 말을 생략하고 몇 묶음에서 몇 묶음까지는 예를 들어 제3묶음에서 제5묶음까지를 ‘3-5’와 같이 간단하게 표시하고자 한다.

락을 배치하고 마지막에 와서 현실적 환경에 따른 석존의 탁월한 문무 능력을 표현하는 것으로 장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연적 시간 순서에 따른 단락 전개와 함께 태자의 문무 능력이 길러진 이유를 드러내고 있어서 논리적 전개 방식을 역시 병행하고 있다.

‘제4장 석존의 출가’ 20개 묶음에서 1-4에서는 태자에 대한 선인의 예언, 5-10에서는 부왕의 대응, 11-15에서는 태자의 뜻을 막으려는 부왕과의 갈등, 16-20에서는 라후라의 출생과 출가, 그 의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는 예언을 시작으로 부왕으로 대표되는 세간의 가치와 태자로 드러난 출세간의 가치가 상호 갈등하면서 출세간을 지향하는 태자가 승리하는 방향으로 단락이 전개되고 있다.

‘제5장 석존의 고행’ 60개 묶음에서는 1-5에서는 출가와 고행의 시작, 6-13에서는 고행 외도 발가선을 만나서 정사에 대한 문답, 14-20에서는 부왕의 비탄과 소환 명령, 21-32에서는 태자의 결심과 세출세간의 두 가지 가치에 대한 빈바사라 왕과의 대화, 33-35에서는 세 가섭을 만남, 36-49에서는 아라라와의 만남과 그의 교설, 50-54에서는 태자의 반박, 55-57는 울다라와의 만남과 그들의 한계, 58-60은 독자적 수행의 순서로 내용이 전개된다. 여기서는 출가한 뒤에 수행 방법을 두고 기존의 수행자들과의 논쟁을 통한 낡은 수행법의 문제점과 그 해결을 위한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순서로 단락이 전개되고 있다. 즉 문제와 그 해결의 관계로 단락이 전개되고 있다.

‘제6장 석존의 성도’ 21개 묶음 가운데 1-5에서는 문제에 대한 자각과 새로운 수행, 6-7에서는 다섯 비구의 떠남, 8-21에서는 독자적 수행과 마장, 그 극복을 통한 깨달음, 20-21에서는 범천의 찬탄으로 단락이 전개되고 있다. 여기서는 문제 발견을 통한 새로운 수행과 도반의 이탈, 독자적 수행과 내면적 문제 발생, 그 극복을 통한 깨달음, 깨달음에 대한 외도신의 찬탄의 순서로 단락이 전개되어 외부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대안, 새로운 대안에서의 내면적 문제 발생, 궁극적 깨달음을 통한 문제의 극복으로 이어지는 단락 전개의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여기서는 ‘외부 문제

->극복->내부 문제->극복(깨달음)->객관적 인정(신의 찬탄)’의 순서로 단락이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장 길이가 긴 ‘제7장 석존의 설법’ 전체 112개 묶음에서 먼저 1-6에서는 석존의 깨침과 기쁨, 작자의 판단과 칭송, 설법의 고민, 7-9에서는 아라라와 울다마라의 죽음, 교진여에 사성제법 교시, 10-13에서는 야사 집안 교화로 우바새와 우바이의 시작, 14-19에서는 우기 안거의 개념, 20-22에서는 세 가섭 제도, 23-34에서는 빈바사왕과 성민 교화와 교설 소개, 35-37에서는 교설로 사리불, 목건련, 마하가섭 교화, 38-40에서는 대림정사 안거와 국가간 물 분쟁 조정, 41-46에서는 성도후 5년 안거와 사음계, 통계계 등 계율 제정, 47-50에서는 영취산 이주와 현재 남은 유적을 통한 사실 증명, 51-55에서는 정반왕의 질병과 위로, 붕조, 56-64에서는 황후와 비궁들 비구니 됄의 허락과 왕사성 중생 교도, 마가다국 궁첩 출가, 제자 사리불이 니건자파 개종시킴, 난타, 아누루타, 우바리 등 여덟 사람 득도, 수도라족 우바리 두고 제자들의 반대와 석존의 평등에 대한 교시, 65-65에서는 성도 7년, 수도장자가 교화 받음, 68에서는 라후라 출가, 69에서는 성도 12년으로 펫리 행화, 70에서는 성도 15년 가비라 귀환, 71에서는 제자 설법 처음 허락, 72에서는 앙굴리마라 교화, 73-76에서는 상수제자 아란과 그의 공적 소개와 칭송, 77-83에서는 마하다국에서 법연과 현재 경전의 근거 자료 제시, 84에서는 영취산에서 법화경 설하기 시작, 85-96에서는 제바달다와 아사세의 반란으로 교단 위기, 작자의 판단, 97-103에서는 사건 해결과 아사세 교화와 그의 외호, 104에서는 기원에서 우기 나고 영취산에서 법화경 완결, 105-112에서는 아사세왕과 울첩비왕의 쟁투, 석존의 양국 조정 등의 순서로 단락이 전개되고 있다.

가장 긴 장편인 이 장의 내용은 이 작품이 교화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려 주는 징표가 된다. 장을 구성하는 단락의 전개가 보여주는 특징은 그의 교화를 시작으로 교단이 형성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제자의 배신과 환경의 변화로 위기에 처하기도 하고, 그의 교화가 출세간에만 치

중한 것이 아니라 부왕을 위한 설법과 사회 제도에 대한 관심과 변화 실천, 국가간의 당면한 분쟁 등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중재하는 주인공의 활동을 보여주어서 교화가 출세간과 세간을 두루 포섭하는 매우 광범한 범위에 걸쳐 있음을 단락 전개를 통하여 보여 주고 있다. 세간과 출세간을 넘나드는 이런 교화 활동이 사실이라는 것을 입증하고 개념을 설명하는 단락을 사이사이에 배치하여 교화의 위대함을 증명하고 알리려는 의도를 구현하려는 방향, 즉 ‘사실->판단(개입)->사실->설명(개입)->사실->증명(개입)’의 식으로 단락을 전개하고 있다.

‘제8장 석존의 입멸’ 51개 묶음의 1-6에서는 과탁리성과 석존 자신에 대한 예언, 수행 당부, 7-19에서는 최후 공양과 고통, 열반, 아난과의 대화, 20-28에서는 최후 구법자 수발다라에게 설법, 28-34에서는 아난과 여러 제자에게 최후 설법, 35-36에서는 교화된 도속들의 슬픔, 37-39에서는 애도와 장송의식, 40-43에서는 가섭의 돌아옴과 유골 봉안, 44-49에서는 유골 나눔, 50-51에서는 사실에 대한 현재적 증명의 순서로 단락이 전개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예언, 수행 당부, 최후 설법과 공양, 열반 등의 과정, 장례와 분골의식의 서술되고 있는데 본인의 삶을 예언하고 열반을 바로 앞 둔 상황에서도 교시를 지속하는 성인의 서거가 어떠한지를 부각하는 방향에서 단락을 서사적으로 전개하면서 이를 입증하는 논리적 전개 방식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제9장 총결’ 8개 묶음의 1에서는 기쁘게 노래할 것을 주장하고, 2-4에서는 뛰어난 교시의 칭송, 5-8에서는 경전 자료와 세계 최고의 종교, 석존의 위임됨의 순서로 단락을 전개하고 있다. 먼저 노래할 것을 주장하고 그의 교시가 뛰어나고 경전 자료가 세계 최고이며 석존의 위임됨이 훌륭하다는 것을 노래해야 할 이유로 제시하는 순서로 단락을 배치하여 주장과 근거 제시라는 논리적 전개를 보여 주고 있다.

요컨대 전체적으로 ‘제1장 총론’과 ‘제9장 총결’을 작품의 맨 앞 뒤에 배치하여 서두와 결말과 같이 논리적으로 장을 배치하고, 본론에 해당하는 ‘제2장 석존의 조선’에서 ‘제8장 석존의 입멸’에 이르는 부분은 주인공

석존의 일생을 시간 순서에 따라 배치하는 방법을 취했다. 겉으로 봐서 이런 단순한 배치와 달리 실제 각장 안에서 드러난 단락의 전개 방식은 각 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작자의 의도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단락 전개 방식을 보여 주었다. 즉 제1장과 제5장, 제6장은 문제->문제 해결의 방식으로 단락 전개를 보이고, 제2, 3, 8장은 자연적 시간 질서와 논리적 제시의 인위적 질서를 병행하고 제4장은 세출세간의 갈등을 통한 출세간적 가치의 승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제7장은 세간과 출세간을 아우르는 교화, 고난과 극복으로 이어지는 교화의 서사적 진행과 그런 사건 사이사이에 객관적 설명이나 판단, 평가 등을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단락을 전개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주장과 논리적 이유 제시라는 방향으로 단락을 전개하고 있다.<sup>14)</sup>

문맥 구조를 통해 감성적으로 제시한 여러 사실을 서사적 논리적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역으로 그것이 곧 석존과 그 가르침의 위대함에 대한 작자의 주장을 뒷받침하게 하는 방식으로 단락을 전개시키고 있다.

### 3. 중층적 장르 성격

가사의 장르 성격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가사의 하위 유형에 따라 특정 장르 성격이 우세하고 우세하지 않은 정도가 다르기도 하고 논자에 따라서 그 성격을 규정하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사의 교술과 서정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비중 있는 실제 작품을 가지고 진행될 때 그러한 논란은 더 구체성을 띠게 되고 더 실효성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고 본다.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복합적 성

14) 작품 전체는 크게 보아서, 본, 결의 3단 전개 방식, 그 하위 대표적 단락 전개 방식은 시간 질서, 문제와 해결의 관계, 자연과 인위의 관계, 세간과 출세간의 관계, 주장과 근거 제시의 관계로 요약해 볼 수 있다.



격을 세부적으로 따져 봄으로써 이 작품의 본질을 구명하며 나아가 자연스럽게 가사 일반의 장르 성격을 설명하는 하나의 구체적 사례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

### 3.1. 서사성

가사의 하위 갈래를 나눌 때 향유층에 따라 사대부 가사, 여성가사, 서민가사, 종교가사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이와 달리 장르 자체의 성격을 가지고 서사가사, 서정 가사, 교술 가사 등의 분류와 논의도 이루어지고 있어서 가사의 서사성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일찍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석존일대가>는 종교 가사이면서 근세 새로운 시대의 가사 작품으로서 가사의 최근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이 필요하다. 실제 작품에서 서사성은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해당 부분의 자료를 가져와서 논의를 계속하고자 한다.

- (5)三千年前 回顧하니 印度恒河 諸上流에  
灌漑地域 四千餘里 沃土穰穰 平原이라(1-1)  
王宮이며 婆羅門塔 翠綠間에 소사잇고  
아름다운 吠陀讚歌 森林속에 嘹唳하네(1-2)1  
王이듯고 一喜一悲 엇지하면 太子께서  
出家하지 아니하고 轉輪聖王 되게하랴(4-5)  
王이생각 하시기를 太子出家 防禦함은  
아모썬록 人世을 樂觀케함 上策이라(4-6)  
이로부터 영취산에 전후장시 주하시샤  
설법하신 聖地됨은 경전에도 분명하네(7-48)  
그런고로 빈바사왕 산록에서 정사까지  
四間通에 十餘町을 일대石燈 건립했네(7-49)  
이영산을 금일에는 일흠곤처 새라기리  
그정상의 암국石燈 遺跡지금 존재하다(7-50)

- (6) 生老病死 觀하시고 求道之念 더욱깊혀  
 倅然한번 父王압혜 出家의뜻 告했더니(4-12)  
 王이듯고 놀라사대 “네가장차 成道하야  
 一切衆生 濟度보다 애비苦悶 구하여라(4-13)  
 내가일즉 位를네게 禪位하고 梵行닥기  
 深願한지 오랜바니 出家하지 말지어다”(4-14)  
 그러하나 太子께서 아버지의 말삼으론  
 긋게세운 그志願을 變更하기 萬無하다(4-15)

- (7) 성도하신 제칠년엔 산킷싸에 안거하샤  
 교살라국 수도되는 사위성에 행화하다(7-65)  
 舍衛城에 일부호가 그일흠이 須達長者  
 왕사성에 잇슬쎄에 세존교화 밧앗더니(7-66)  
 바사왕씨 청을드려 지다태자 저원열어  
 祇園精舍 지여놋코 세존유석 청했더라(7-67)  
 성도하신 第九年엔 기원사에 안거할때  
 라후라가 十八歲라 출가함을 허락하다(7-68)

여기서는 서사성을 그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 정황과 인물들 간의 갈등 양상, 그리고 서술상에 보이는 시제 문제의 기준에서 살피고자 한다. (5)는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 정황을 보여 주는 자료이다. 인용문 (5)는 이 작품의 서로 다른 세 부분을 가져 온 것인데 먼저 1-1,2를 보면 자아는 이 작품이 시작되는 작품 내적 배경으로서 시간, 그리고 공간, 이런 시공간의 배경 속에 나타난 왕궁과 울려 퍼지는 폐다 찬가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다. 작자가 직접 작품에 개입하여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작품의 내적 배경을 서술하고 그 배경 위에 펼쳐진 정황을 직접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일반 서사문학 특히 소설에서 작품 서두에서 작품의 내적 배경을 시작으로 작품 정황을 서술하는 것과 같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4-5,6부분을 보면 1부분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의 중요한 등장 인물의 한 사람인 정반왕이 자기 아들 태자의 운명에 대해서 듣고 그의 출가 의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

여 궁리하는 내면의 생각을 드러내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자가 전륜성왕이 될 수도 있고 수행자가 될 수도 있다는 예언자의 말을 들은 부왕이 한편 기뻐하고 한편 슬퍼하는 내면의 양면적 심정을 먼저 드러내고 태자의 출가를 막기 위한 방안을 고민한 끝에 인간 세상을 낙관하게 하는 것이 상책이라는 판단을 내린 정반왕의 내면 심리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작자가 작품 세계의 외양을 그리는데 그치지 않고 인물의 내면 심리까지 묘사해 드러냄으로써 서사의 시점상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보여주는 서술의 양상을 여기서 보여준다. 이러한 작가의 개입이 마지막 7-48,49,50에 오면 또 다른 양상으로 전개된다. 여기서는 석존이 영취산에 옮겨 와서 오랫동안 설법한 사건을 서술하고 이것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은 것이 아니라 경전의 근거를 인용하여 그런 서술이 맞다고 논증적 내용을 말하는 방식으로 개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다음에 나오는 빈바사왕이 석등을 세운 것을 서술하고도 그런 유적이 지금도 존재한다는 현재적 사실을 근거로 유적에 대한 설명을 함으로써 또 다른 방법으로 작품에 직접 개입하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 작품 외적 자아는 작품 안에 직접 개입하여 작품의 내적 배경이라는 외면,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작품 내용에 대한 고증적 사실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품 전편에 걸쳐 개입을 하고 있어서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라는 측면에서 서사 문학의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개입은 위에 인용한 부분은 물론 작품 전편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작자 개입의 차원에서 서사성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인물들 간에 갈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에서 작품의 서사성이 더 강화되는 측면을 보여 주고 있다. 가장 치열한 갈등이 위에 인용한 (6)에서 부왕과 태자간에 출가 여부를 두고 보인 첨예한 대립이다. 주인공 태자는 출가 의지를 분명하게 가지고서 부왕에게 뜻을 밝히는 데 부왕은 이를 두고 일체 중생 제도보다는 예비 고민을 구하라고 명령을 내림으로써 갈등은 시작부터 상당히 심각하게 시작된다. 태자는 여기에 순순히 따르지 않고 뜻대로 출가를 감행한다. 여기서 갈등은 더 이

상 지속되지 않는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 부왕은 태자가 출가하여 수행처로 멀리 떠난 뒤에도 사람을 보내서 돌아오게 명령을 내리고 태자는 종자에게 거부의 뜻을 전하고 수행을 위하여 다시 더 먼 곳으로 스승을 찾아 떠나는 일이 이어진 작품의 내용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은 이런 부자간의 갈등을 겪으며 출가하여 만난 수행자들과의 또 다른 갈등이다. 몇몇의 수행자들은 자신의 수행법을 소개하고 태자를 제자로 붙잡아 두려고 하지만 논쟁을 통한 갈등 과정을 거치고 마침내 태자는 떠나게 된다. 그리고 천민의 출가를 받아들인 것을 두고 스승 석존과 제자 사이에 벌어진 갈등, 열반 직전에 처한 석존의 친견을 요구하는 구법자와 이를 만류하는 제자의 갈등 등 상당히 여러 가지 갈등이 나타난다. 단순한 이야기의 서술이 아니라 자아와 세계의 대립, 갈등의 측면을 이 작품은 상당히 여러 차례 사실적으로 보여 준다는 점에서 서사적 성격을 더 심화해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서사의 표지로서 중요한 것이 시제인데 이 작품은 서사의 특징인 과거시제를 사용하면서도 현재 시제를 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위 인용문 (7)의 7-65, 68에서는 현재시제, 7-66, 67에서는 과거시제를 각각 사용하고 있다. 바로 인근 같은 문맥에서 이와 같은 두 가지 시제가 혼용되고 있다. 과거 시제가 서사의 본령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사용한 현재 시제는 작품이 표현하고자 하는 세계의 사실성을 더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제를 통해서 보여준 내용을 보면 석존이 행화한 이야기, 아들 라후라를 출가시킨 내용이 등이다. 작자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사건을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과거로 표현한 사적조차도 역사적 현재로 부각하는 이중의 효과를 지향한 결과 과거와 현재 시제를 병용한 것으로 보인다.<sup>15)</sup>

요컨대 이 작품은 작품 외적 자아의 표면적 심층적 개입, 인물들간의

15) 몇 가지 측면에서 이 작품이 서사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작품이 시가라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시가 가지는 기본 조건으로서 현재 시제를 자연스럽게 구사한 일면이 없지는 않다.

치열한 갈등의 연속, 서술상의 과거와 현재시제의 혼용을 통하여 작품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사성을 비중 있게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3.2. 회곡성

작품 외적 자아가 개입하지 않고 인물의 행동과 대화만으로 이루어지면 이것이 회곡인데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작품 외적 자아의 개입이 압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인물들간의 핵심 갈등 부분은 대화로 처리되어 회곡성을 또 다른 특성으로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 절에서 인용한 (6)의 내용을 회곡성이라는 측면에서 다시 보면 태자의 말은 설명으로 처리되고 왕의 말이 대화의 방식으로 드러나 있다. 출가의 뜻을 직접 고한 데 대하여 부왕은 중생 제도보다 애비 고민을 구하라고 하고 왕위를 잇게 하기 위해서 출가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명령을 내린다. 이런 지시에 대해서 태자의 대답은 설명으로 대치되어 있는데 부왕 앞에서 직접 거역하는 말을 쏟아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를 작자의 설명으로 대치했다. 거부하는 심정을 여기서는 설명으로 대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회곡에서 방백이나 독백으로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세속에서 왕위를 잇기를 바라는 부왕과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려는 태자의 첨예한 갈등이 극적으로 잘 나타나는 부분이다. 앞에서 살폈듯이 이러한 갈등은 태자가 이미 출가하여 수행처로 떠난 상황에서도 계속된다. 부왕이 사람을 보내서 태자를 돌아오게 명령하고 다시 태자는 이것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중요한 대화의 장면이 더 나타난다.

- (8)태자익서 跋伽仙의 질문하야 무르샤대  
“네가무삼 목적으로 이와가치 苦行하나”(5-9)  
跋伽仙이 대답하되 “未來世에 天上에서

樂果얻기 원하거든 今世苦行 이리하라”(5-10)  
 太子씩서 이르사대 “너희들의 요구하는  
 天上잇는 樂果라도 아즉究竟 아니니라(5-11)  
 모든天樂 잇다하나 그福報가 한이잇서  
 福業한번 멸진하면 六道輪廻 못면한다(5-12)  
 모든 苦因 修行하여 엇지苦報 구하리요  
 네구하는 樂이란 것 畢竟苦勞 쏜이로다”(5-13) 7-8

(9)새에 頻婆 沙羅王은 城樓에서 眺望타가  
 太子압헤 拜謁하고 親히물어 하는말삼(5-26)  
 “仁者씩서 出家하샤 이럿타시 苦行하심  
 그동기가 무엇이뇨 王位엇지 못함인가(5-27)  
 내國土를 절반하야 公의通治 비옵나니  
 만일부족 하시다면 全領地를 드리리다(5-28)  
 나는다못 仁者위해 깃버臣事 하오리며  
 쏘한四兵 잇사오니 四隣略取 하옵소서”(5-29)  
 太子씩서 사사호대 “내가가진 그立志는  
 生老病死 四苦쓴코 無上解脫 엇음이라(5-30)  
 내가엇지 世間汚辱 엇기위해 출가하리  
 원하노니 大王이여 正法으로 治國하소”(5-31)  
 頻婆沙羅 이말듯고 감동되야 伏請하되  
 “仁者解脫 엇거시던 나를몬져 濟度하오”(5-32) 9

(8)은 태자가 수행에 나서서 고행자인 발가선과 나눈 대화이다. 고행의 목적을 묻는 태자의 질문에 발가선은 이유를 단순히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에 나기 위해서 너도 고행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있다. 초보 수행자임에도 불구하고 태자는 이를 따르기보다는 상대가 말한 천상이 구경의 경지가 아니라고 단정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밝혀 반박하고 있다. 천상의 복은 한이 있고 다하게 되면 윤회를 면하지 못하며 그래서 고행을 통해서는 고의 과보를 면할 수 없다고 하면서 상대가 구하는 즐거움이 오히려 苦勞일 뿐임을 강조한다. 천상의 낙을 추구하는 고행 외도와 태자의 대화에서도 두 사람의 주장이 서로 어긋나면

서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태자가 그곳을 떠남으로써 갈등은 미해결의 상태로 그냥 남는다.

외도와외의 대화에서 갈등이 좁혀지지 않고 평행선을 달리는 경우는 아라라와의 대화 장면에서도 나타난다. 아라라도 다른 외도처럼 자기가 만든 수행법을 태자에게 따르라고 명령을 내리지만 태자는 앞의 경우와 같이 그의 주장이 가지는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함으로써 상대를 설득하는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 결국 말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된다. 이와 같은 외도와외의 대화에서 갈등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석존의 제자가 된 애초 대부분의 외도들은 모두 석존의 교설에 감화를 받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갈등이 해소되는 모습을 보인다.

(9)는 부왕과 같이 국가 통치라는 현실적 가치를 중시하는 다른 나라 빈바사라 왕과의 대화이다. 여기서 빈바사라 왕은 태자에게 고행의 이유가 왕위를 얻지 못해서 그런가라고 자기 기준에서 질문을 하고 자기 나라 땅 반을 주겠다고 하다가 부족하면 다 주겠다고 하고 병사가 있으니 이웃 나라를 쳐서 빼앗으라는 제안까지 한다. 여기에 대하여 태자는 四苦의 고통을 끊고 해탈을 얻으려 출가했기 때문에 세간의 오욕은 추구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고 오히려 대왕에게 바르게 나라 다스리는 방법을 교시한다. 이에 왕은 앞의 외도들과 달리 감동을 받고 태자가 해탈을 하게 되면 자기를 먼저 제도해 달라는 당부를 하기에 이른다. 여기서의 수행 방법을 두고 갈등하는 것이 아니라 세간의 가치와 출세간의 가치 사이의 갈등이 드러났고 세속의 제왕이 태자의 출세간의 가치에 동의하면서 대화는 마무리된다.

이상과 같이 이 작품에서는 작품 외적 자아가 직접 개입하여 인물들의 행동이나 말을 설명하기도 하지만 인물들 간에 상호 대화가 드러나는 경우가 여러 차례 나타났는데 이런 대화는 출가를 두고 갈등을 빚은 부왕과의 대화, 출가후 수행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외도와외의 대화, 다른 왕과의 대화, 갈등이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사제간, 제자들 사이의 대화역시 드러났다. 이런 대화의 기법은 그 자체로 희곡적 성격을 보여 주는

것인데 대화의 제시 방법에 있어서 작자가 설명을 희곡의 지문과 같이 하고, 대화를 희곡의 대화와 같이 하여 본격적 희곡의 장치를 방불하게 보여 줌으로써 이 작품은 희곡성을 작품의 또 다른 중요한 성격으로 확보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작품 전체의 성격을 서사성, 희곡성과 연관해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 위에서 보았듯이 이 작품은 주인공 석존을 중심에 두고 그 이전, 당시, 이후의 과거 사건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읊고 있어서 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작품 외적 자아가 개입하여 등장 인물들의 삶의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서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작품의 일부에서 인물들 간의 대화를 배치하고 이러한 대화가 작품의 중요한 갈등의 면모를 보여 준다는 점에서는 희곡성도 역시 나타난다. 그러나 한편 이 작품이 보여준 이러한 성격이 구체적 내용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런 성격만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문맥구조와 단락 전개 구조에서 밝혔듯이 표현 구조를 통하여 나타낸 서사의 핵심 인물들이 역사적 인물이고 그들이 보여준 행동과 말 역시 역사적 사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대화의 기법을 가끔 더해 가며 서사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내용들이 모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고 이런 정보를 알리고 교시하고 있어서 교술성을 작품 저변에 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작품은 사실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서사의 형태를 빌리고 중간에 희곡적 요소를 더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장르적 성격은 희곡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사적 교술이라고 말할 수 있다.

#### 4. 결론

석존의 일생을 다룬 율문과 산문의 오래된 전통 가운데 특히 율문의



전통을 근현대에 가사로 실현해 보인 작품이 여기서 다룬 <석존일대가>이다. 이 작품은 근대 가사로서 형식과 내용상의 특징도 보여주며 근본적으로 교술이지만 서사적, 희곡적인 성격도 보여 주고, 또한 장편으로서 부처의 일대기를 다루는 문학사의 최근 양상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작품적 가치를 지닌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작품 자체에 대한 기존의 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최근 하나의 논문이 이 작품의 작가, 시대 등의 문제와 함께 작품을 전체적으로 다루어서 논의가 이제 시작되는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 작품 자체의 표현 구조, 장르 성격 등을 따져 봄으로써 그 본질을 해명해 보이려고 집필했다. 지금까지 논의를 요약하면서 결론을 삼고자 한다.

먼저 표현 구조에서는 문맥 구조와 단락 전개 구조를 논의하였다. 문맥 구조에서는 두 행 또는 두 문장 이상이 모여 이룬 큰 문장들의 내적 상호관계 맥락을 연결 방식과 종결 방식으로 나누어 살폈다. 연결 방식에서는 사실의 나열이나 시간 순서에 따른 제시의 관계로 연결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인과 관계로 연결된 경우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러한 연결 방식은 이 작품이 다양한 정보를 독자에게 전달하면서도 논리성에 입각함으로써 독자를 설득하고, 교시하자 하는 의도가 문맥 구조에서 드러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단락의 전개 방식에서 보면 작품 전체가 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9개의 장은 다시 하위 여러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장별로 단락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살폈다. 제1, 5, 6장은 문제→해결의 배치 방식으로 단락 전개를 보이고, 제2, 3, 8장은 자연적 시간 질서와 인위적 논리 질서를 병행하고 제4장은 세출세간의 갈등을 통한 출세간 가치의 승리를 드러내는 방향으로, 제7장은 세간과 출세간을 아우르는 교화, 고난과 극복으로 이어지는 교화의 서사적 진행과 사건들 사이사이에 객관적 설명, 평가, 판단 등을 개입시키는 방식으로 단락이 전개되고 있었고, 제9장에서는 주장과 이유 제시라는 인위적 논리에 따라 단락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것은 곧 문맥 구조를 통해 다양하게 제시한 여러 사실을 논리적

으로 증명함과 동시에 석존과 그 가르침의 위대함에 대한 작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단락을 전개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었다.

다음은 작품의 장르 성격을 살폈다. 서사성의 관점에서 이 작품은 작품 외적 자아가 장면의 서술을 통한 표면적 개입은 물론 인물의 심리 세계나 제시한 사실에 대해 고증하는 방식으로 작품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심층적 개입을 하고 있고, 또한 작품에 등장한 인물들간의 치열한 갈등 양상을 드러내며, 전체 작품 내용의 서술에서 과거시제와 현재시제를 혼용하여 내용 전달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있다는 점 등에서 서사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다.

또한 이 작품은 서사성과 함께 희곡적 요소인 대화를 많이 사용하는데 특히 핵심적 갈등 요소를 주로 이런 대화의 기법으로 처리하고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출가를 두고 갈등을 빚은 태자와 부왕의 대화, 출가 후 수행방법을 두고 갈등을 빚은 태자와 외도의 대화, 그리고 갈등 정도가 다소 약화되기는 했지만 석존과 제자의 대화, 제자들 사이의 대화가 그 대표적 예이다. 이런 대화의 기법은 그 자체로 희곡적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는데 특히 대화의 제시 방법에서 설명을 희곡에서의 지문과 같이 하고 대화 방식은 희곡의 그것과 같게 하여 본격적 극의 성격을 보여 줌으로써 이 작품은 희곡성을 작품의 또 하나의 장르 성격으로 확보했다고 보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성격은 근본적으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사실을 알리고 가르치려는 교술성에 기초하고 있었다. 결정적 갈등을 대화의 기법으로 처리하여 극적 효과를 일부 가져 오면서도 전체적으로는 사건의 시공간적 전개 흐름을 보여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미약한 희곡성은 서사성을 강화하는데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희곡성과 서사성이라는 두 성격을 통하여 드러낸 내용이 표현구조에서 밝힌 바 허구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실을 알리고 가르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 작품의 장르적 성격은 희곡적 성격을 일부 가진 서사적 교술이라고 보았다.

지금까지 <석존일대가>를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분석해 보았다. 이 작품 자체에 대한 분석이 미진한 상태였기 때문에 석존을 내용으로 하는 다른 시가와 대비, 또는 일반 서사가사와의 대비 연구는 진행하지 못했다. 이런 확장된 논의는 앞으로의 연구에서 더 다루어할 과제로 남겨둔다.

## 참고문헌

- 김기중, 「〈석존일대가〉의 서술 양상과 시대적 맥락」, 『불교학보』 제 54집,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0. 189-219쪽.
- 김기중, 「근대 불교잡지의 간행과 불교대중화」, 『한민족문화연구』 제26집, 한민족문화학회, 2008. 377-416쪽.
- 김기중, 「근대불교운동의 이념과 전개-권상로 백용성 김태흡의 문학 작품을 중심으로」, 『한민족문화연구』 제28집, 한민족문화학회, 2009. 347-378쪽.
- 김종진, 「근대 불교혁신운동과 불교가사의 관련 양상-학명의 가사를 중심으로」, 『동양학』 제36집, 단국대 동양학연구소, 2004. 27-44쪽.
- 김종진, 「전통시가 양식의 전변과 근대 불교가요의 형성-1910년대 불교계 잡지를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제52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2009. 32-62쪽.
- 박경주, 「근대 계몽기의 불교 개혁운동과 국문시가의 관계」, 『고전문학연구』 제14집, 한국고전문학연구회, 1998. 87-116쪽.
- 이봉춘, 「불교지성의 연구활동과 근대불교학 정립」, 『불교학보』 제 48집, 동국대학교불교문화연구원, 2008. 83-114쪽.
- 李應涉 舊稿, <釋尊一代歌>, 『佛敎』 제35호, 佛敎社, 1927. 2-65쪽.
- 이응섭 원작, 권상로 윤색, <가찬 석존전>, 『조선불교계』 1-3호, 불교진흥회, 1916. 4-6월, 37-43쪽, 39-50쪽, 39-48쪽.
- 이응섭, <문답불교>, 『불교』 제5-25호, 불교사, 1924.11.-1926.7.
- 이응섭, <법성>, 『불교』 제2-4호, 불교사, 1924.8-10월. 56-61쪽, 53-58쪽, 51-57쪽.
- 이응섭, <오등의 사명>, 『조선불교총보』 제11호, 삼십본산연합사무소, 1918, 11-14쪽.

임기중 편저, <석존일대가>, 『불교가사원전연구』, 동국대학교출판부, 2000. 1043-1128쪽.

전재강, 「제2장 경상북도 지역 민간 전승 불교가사 유형과 작품의 성격」, 『한국불교가사의 유형적 존재 양상』, 보고서, 2013. 329-359쪽.

전재강, 「제9장 찬불가류 불교가사의 지향적 주제와 다층적 갈래 성격」, 『한국불교가사의 유형적 존재 양상』, 보고서, 2013. 268-300쪽.

<Abstract>

A study on the structures and characteristics  
of <Seokjonildaega(석존일대가)>

Jeon, Jae-gang

This paper is written in order to research for the structur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okjonildaega(석존일대가)> in two aspects by analyzing itself..

Firstly, in the expression structures of <Seokjonildaega(석존일대가)>, two sentences are connected by enumerating facts, presenting facts in time order and by co-relating cause-effect. Writer intended to inform or to teach facts, and to persuade reader logically by using that kinds of context structure.

In the way of paragraph developing, there are four kinds of style, that is problem-solution, nature order-artificial order, teaching-explanation-judgement order. By these styles of the way of paragraph developing, the writer tried to attest some document and to proof his opinion by those developing their thinking about Buddha and Buddha's teaching.

Secondly, in the aspect of genre, there are three kinds of genre characteristic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dramatic characteristics, instructive characteristics. The descriptive characteristics of this work stems from narrating story in time order, and the dramatic characteristics of this work stems from personae's dialogues and activities, and the instructive characteristics of this work stems from writer's intention of

teaching Buddhism. In the way of relationship of these three characteristics, the writer of this work used these two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dramatic characteristics for teaching people effectively. So these two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dramatic characteristics are based on the instructive characteristics. This means that the layers of genre characteristics are double. That's which two upper layer is descriptive characteristics and dramatic characteristics, one under layer is the instructive characteristics. In conclusion, this work is multiple in dimension of genre characteristics with the organic relationship of these three genre characteristics each other.

Even though I studied the structur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Seokjonildaega(석존일대가)> in two aspects., there could be the other things to study about these kinds of theme. I love to continue researching the other kinds of theme next time by writing the other research paper in the near future.

**Key words :** <Seokjonildaega>, expression structure, context structure, paragraph developing, descriptive characteristics, dramatic characteristics, instructive characteristics

투고일 : 2015년 1월 15일, 심사 : 1월 19일~2월 12일, 게재확정 : 2월 12일

